



# 위대한 선군혁명령도사에 빛나는 불멸의 업적 영원히 잊지 않으리



↑ 최전연군인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84(1995)년 9월  
← 끊임없이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89(2000)년 11월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양크사단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49(1960)년 8월



시험비행을 몸소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56(1967)년 9월



해병들의 항해훈련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64(1975)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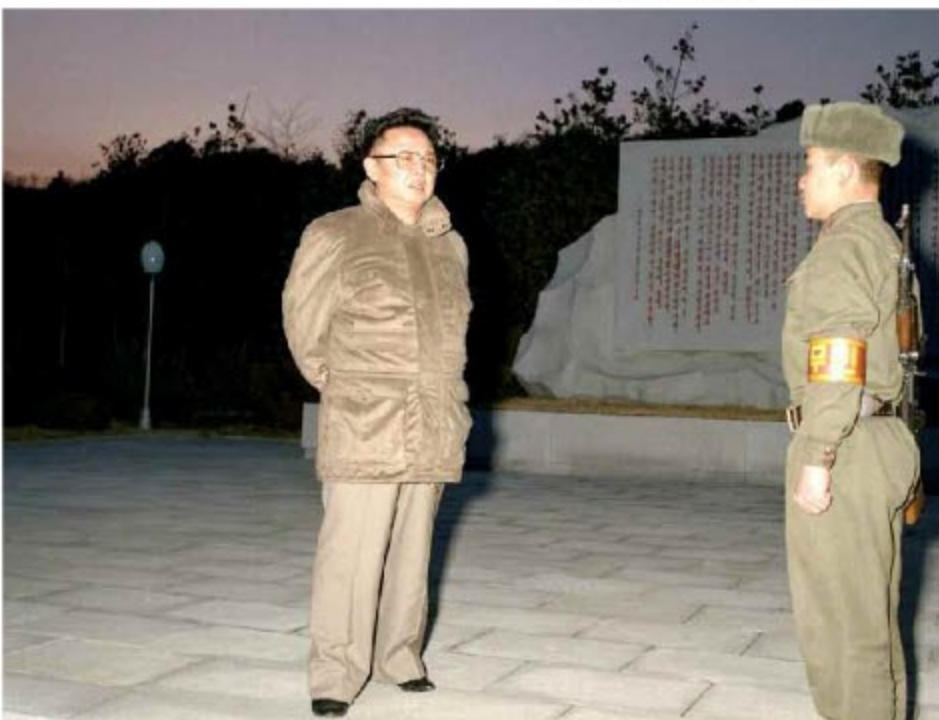
다박솔초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84(1995)년 1월



적들과 첨예하게 대결하고있는 판문점초소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85(1996)년 11월



지혜산혁명사적표식비알에서 아버지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경의를 드리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86(1997)년 4월



철령마루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하고있는 인민군병사를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85(1996)년 3월



인민군부대의 양묘장에 들리시어 나무심기정형을 료해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93(2004)년 3월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양크사단관하 구분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99(2010)년 1월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돐에 즈음한 청년학생들의 경축모임이 21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서는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평양고무공장 로동자 김려중, 사공구역 장일남제철공로동자 장영진,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강성일, 서성구역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신철이 연설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은 조선로동당창건 일흔흔을 선군조선의 혁명적대승으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그날이 있어 백두밀림에서 총대로 개척되고 승리의 영광을 향하여 온 성스러운 혁명역사와 전통이 줄기차게 이어져 왔으며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기가 마련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지난 1990년대 중엽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범한 군사적재능과 명철한 전략으로 제국주의침략행위를 반공화국전략행동을 짓부시고 세계전쟁사에 류례없는 모험없는 전승신화를 창조하시어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셨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조국과 혁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으로 온몸을 불태우시며 끊임없는



##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과일대풍으로 빛내여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천지막을 칠하시어 관철하기 위한 필기모임이 21일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 진행되었다. 인민보안부 일군들,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종업원들, 조선인민보안군 군인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인민보안부장 최부일동지의 보고에 이어 결의토론회가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농장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농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처음으로 파룬인 수백의 사과를 알았어 플라 수도사민들에게 보내주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셨다고 하시며 과일들을 받아내고 좋아한 인민들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고,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고, 나라가 흥할 징조이 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

## 청년 학생들의 경축 모임

선군길을 이어가신 절세위인의 정력적인 령도로 하여 이 땅위에 일찍이 있어본적이 없는 경이적인 사면들이 펼쳐지고 후손대대의 행복을 담보하는 만년토대가 마련되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 한편의 회색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기 위하여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되고있으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은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어버이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위대한 선군대장으로 천세만세 높이

## 전국 희토류 응용 기술 부문 과학 기술 발표회 진행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전국희토류응용기술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19일과 20일 원산농업종합대학에서 진행되었다. 국가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원산농업종합대학을 비롯한 과학, 교육기공대에서 희토류응용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 기술자, 교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우리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최신파라기술에 의거한 희토류자원의 탐사와 선광, 희토류

## 제41차 정일봉상 전국 청소년 학생 체육 경기 대회 폐막

제41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 학생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었다. 평양시와 평성, 함흥, 사리원 시에서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에서 청소년학생들은 당의 체육강국건설시상을 높이 받들고 종목별전문화체육소조활동을 힘있게 벌려온 나날에 면한 체육경기력과 집단주의정신, 고상한 경기도덕성을 잘 보여주

## 총련의 대표단들이 떠나갔다

조국해방 70돐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하였던 재일본 조선민주주의성동맹일군대표단, 재일본조선인민대표단이 20일

## 전선지대의 모뎀 단위를 준전시체제로 일제히 전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억척불굴의 혁명신념과 혁명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처럼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조선전 위협천만한 정세에 대처하여 전선지대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 하도록 해

## 청년 중앙 예술선전대 공연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이 21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공연무대에는 여성3중창 《경애하는 그이름에 안긴 이 행복》, 트럼펫2중주와 남성방창 《백두의 말발굽소리》, 여성2중창과 혼성방창 《선군리리리》, 제대 《형준의 이름》, 국악이 《500민의 신념》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력사의 존엄한 시련과 성과를 예지하며 우리 혁명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로 이끌고있는 위대한 수령 김정은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배우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돐을 축하하며 그이께 가장

##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 청진항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돐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가 20일 청진항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청진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집회장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배우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돐을 축하하며 그이께 가장

## 로농적위군 대원들 교도의 격동상태에 들어갔다

장원도안의 전선지대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억척불굴의 혁명신념과 혁명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처럼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조선전 위협천만한 정세에 대처하여 전선지대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 하도록 해

## 더욱 강렬해지는 보복의지

개성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주는 정의이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력사의 필연입니다.》 본계연선도시 개성시가 보복의 의지로 뿔여버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학대회의소식에 접한 시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감히 신성한 이 땅에 무지막한 군사적대항을 해온 남조선군부장제들을 단숨에 축약처리할 열의에 넘쳐있다. 이제 그렇지 않겠는가. 행복년월이 땅에서 기대를 들리고 목숨을 가 줄 때에도 원한을 분개시키며 남쪽 땅에서 파연 어느 하루, 한시도 새 전쟁도발에 미쳐 남쪽은 미제와 남조선군부장제들의 총포성이 멎어 본적이 없었다. 시당위원회에서

##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을

강령군에서

강령군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열의적인 기상이 하에 담고있다. 연평도교전전의 참예를 망각하고 분별없이 높아대는 미천개무리에게 선군조선의 적재물소나기맛을 보여주자는 것이 강령군 인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군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대와 한결같이 선심정으로 원수사이에 한사탕같이 떨쳐나섰다. 로동적위군 대원들은 원수들을 모조리 격멸소탕할 의지로 가슴 불태우며 만단의 전투동태를 갖추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박 철

##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 경기들

이날 평양체육관에서 기관차체육단과 평양체육단사이의 예술체조전경기, 압록강지방체육단에서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 압록강지방체육단, 녀선수들이 참가하는 활쏘기대항 경기가 벌어지게 된다. 23일(일요일) 오전에 청춘거리 경기장에서는 4.25체육단, 평양체육단, 기관차체육단, 조선체육대학체육단, 녀선수들이 참가하는 권투경기대항 경기가 있게 된다. 24일에는 봉화산림과 장수부림과의 경기가, 25일에는 조별



# 새 전쟁도발책동에 환장한 호전광들을 씨종자도 없이 쓸어버리자

## 심리모략전에 징벌의 철추를 내릴것이다

오늘 남조선피괴전광들의 무분별한 도발광기는 더이상 참을수도 허용할수도 없는 엄청난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로 말미암아 나라의 정세는 위기일박의 폭발 국면으로 치달고있다.

조선된 위협천만한 정세에 대처하여 긴급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21일 17시부터 조선인민군 전선대원합부대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 무장한 전선상태로 이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선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조선된 위협천만한 정세에 대처하여 긴급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21일 17시부터 조선인민군 전선대원합부대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 무장한 전선상태로 이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선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 도발자들에 대해 무자비한 심벌적반타격을 안기고야말로 지리멸렬 고도의 격투태세에 진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은 적들의 침략행동을 단호히 짓궂게버리고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자위적조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과 전쟁책동에 도 단호히 대응할것이다 징벌을 가할것입니다.》

남조선피괴들의 심리전과 포사격망은 침략전쟁의 불을 달기 위한 엄청난 정치군사적도발이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일촉즉발의 위기는 남조선피괴들의 심리전이 어떤 엄청난 후파를 초래하였는가를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피괴들은 지난 4일에 발생한 《지피복발》 사건을 구실로 전선전선에서 10일부터 심리전방송을 체계하는 길에 들어섰으며 반공화국배과

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남조선 피괴호전광들이 감히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고도 미친듯이 덤벼들고있는 것을 후호도 허용할수 없다.

남조선피괴들의 무모한 도발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자위적조치는 지극히 정정당당한 군사적선택이다.

최고사령관 명령은 침략자, 도발자들이 오만무례하게 날뛰면 날뿔수록 그에 초강경으로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이익,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려는 우리 천만군민의 확고부동한 혁명적립지와 열의의 의지를 반영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가치를 높이 들고나아가는 불멸의 강국이다. 우리 인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 군대가 목숨으로 지키려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고귀한 혁명의 전취물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슬하에서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가장 궁지없는 존엄높은 인민으로 자라났다. 미제가 지난 세기 50년대에 청소하던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할 용수림에 전쟁을 도발하고 방대한 침략무력을 투입하며 미친듯이 날뛰었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영웅적으로 싸움으로써 조국강토를 영예롭게 수호하고 영웅조선의 위상을 온 누리에 떨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 위대한 장군님께서 신군으로 지켜주신 우리 조국을 오늘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빛내여 주셨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한 그 어떤 대적도 단숨에 쳐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이고 의지이다.

남조선피괴들의 악랄한 정치군사적도발책동은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족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에 우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청난 위협으로 된다. 내외호전광들의 공공연한 침략전쟁책동에 무자비한 반타격을 가하는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우리의 신성한 권리이며 력사와 민족 앞에 지닌 숭고한 의무이다. 나라의 자위권과 존엄을 생명의 파도 같이 커중히 이

## 고의적인 무장도발, 파렴치한 침략행위

남조선피괴들이 전쟁도발책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다. 피괴호전광들은 우리가 저들을 향해 포탄 한발씩을 발사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사건을 날조하면서 8월 20일 오후 전선중서부지역에서 아군인경초소들을 목표로 36발의 포탄을 쏘아대는 극히 엄중한 무장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에 함부로 불질을 한 피괴군부대들의 망동은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포괄적인 침해이며 공공연한 전쟁선포행위로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파렴치한 침략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한 피괴역적배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불붙이 날뛰는 호전광무리를 백배, 천배로 가지않이 징벌할 열의의 의지를 버리고있다.

피괴들의 이번 포사격도발은 생방사이의 현 군사적긴장상태를 고의적으로 격화시켜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계획적인 책동이다. 최근 조선반도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첨예하다. 남조선피괴들은 지난 8월 4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의문의 《지피복발》 사건을 무작정 우리와 연결시키면서 그것을 구실로 전선전선에서 반공화국심리모략방송을 개시하였다. 한편 악질적인 보수반동단체들을 내몰아 우리측 지역을 향해 배라살포작전을 광범적으로 벌이고있다. 더우기 스치치날수 없는것은 피괴들이 미제침략군과 함께 방대한 침략무력을 내몰아 북침핵시점정인 《지피복발》 사건을 계기로 그들의 무모한 도발이 계속되고있다. 피괴군부대들의 무자비한 도발이 계속되고있다. 피괴군부대들의 무자비한 도발이 계속되고있다. 피괴군부대들의 무자비한 도발이 계속되고있다.

남조선피괴들은 격노한 우리의 최후통첩을 무겁게 대하고 심사숙고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만일 피괴들이 우리의 최후통첩마저 무시하고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을 비롯한 군사적도발을 계속 확대한다면 우리의 초강경 조치 행동으로 옮겨갈지 필것이다. 그로부터 조래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괴역적배들이 져야 한다.

최 종 호

## 전쟁미치광이들의 구차스러운 변명

피괴들이 우리가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지 않을것을 요구하는데 대해 너무나 많은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며칠전 피괴통일부 대변인은 《을지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에 대해 《방어적이고 년배적이며 정적이고 순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저들의 도발적인 북침장난소동을 또다시 정당화해나섰다.

그 무슨 《방어적》이니, 《년배적》이니 하는것은 미국과 피괴들이 북침합동군사연습을 합리화하기 위해 늘어놓고 있는 판에 박힌 수작이다. 《을지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을 이미 만천하에 드러냈다. 한마디로 말하여 《을지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한마디로 말하여 《을지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한마디로 말하여 《을지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 무섭게 치솟는 천만군민의 보복열기

최후결전의 시각은 드디어 왔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남조선 피괴호전광들이 감히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고도 미친듯이 덤벼들고있는 것을 후호도 허용할수 없다.

남조선피괴들의 무모한 도발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자위적조치는 지극히 정정당당한 군사적선택이다.

최고사령관 명령은 침략자, 도발자들이 오만무례하게 날뛰면 날뿔수록 그에 초강경으로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이익,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려는 우리 천만군민의 확고부동한 혁명적립지와 열의의 의지를 반영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가치를 높이 들고나아가는 불멸의 강국이다. 우리 인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 군대가 목숨으로 지키려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고귀한 혁명의 전취물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슬하에서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가장 궁지없는 존엄높은 인민으로 자라났다. 미제가 지난 세기 50년대에 청소하던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할 용수림에 전쟁을 도발하고 방대한 침략무력을 투입하며 미친듯이 날뛰었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영웅적으로 싸움으로써 조국강토를 영예롭게 수호하고 영웅조선의 위상을 온 누리에 떨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 위대한 장군님께서 신군으로 지켜주신 우리 조국을 오늘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빛내여 주셨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한 그 어떤 대적도 단숨에 쳐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이고 의지이다.

남조선피괴들의 악랄한 정치군사적도발책동은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족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에 우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청난 위협으로 된다. 내외호전광들의 공공연한 침략전쟁책동에 무자비한 반타격을 가하는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우리의 신성한 권리이며 력사와 민족 앞에 지닌 숭고한 의무이다. 나라의 자위권과 존엄을 생명의 파도 같이 커중히 이

## 침략전쟁에 한몫 차지

우리 기업소인의 전체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지금껏 열의의 의지로 버리고버려서 무죄주목으로 미제와 피괴역적배들을 모조리 추방해버리겠다.

피괴호전광들은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미제와 그 주구

침략전쟁에 한몫 차지

얼마전 미제침략자들이 야합하여 《을지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홍보소동을 요란히 떠서 피괴역적배들이 어떤 우리의 신성한 영토를 향해 수습발의 포탄까지 쏘아대는것은 온 나라 천만군민의 죄수들을 무겁게 폭발시키고있다.

이 땅이 어떤 땅이고 이 제도가 어떤 제도가기에 감히 신불질을 한단 말인가.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사회주의의 내 조국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려는 자들은 후호도 용서치 않을지 지구상 그 어디에 있던 자라도 징벌하러는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그런데 뭇못도 아닌 바로 우리의 코앞에 도사리고있는 남조선피괴들이 우리 공화국을 감히 넘보며 무모하게 포탄을 쏘아대니 우리가 어떤 강제로든 침략자들을 파면 그대도 물수 있던 말인가.

예초에 백두산혁명강군의 상대로 되지 않는 미국의 식민주주구들떠우라 그것도 상진히 쓰러내라 파멸같은것을 들고 우리를 어찌보겠다고 어찌를 부리

# 우리 나라에 조성된 위험천만한 정세에 대하여

## 주요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에게 통보

【평양 8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에 조성된 위험천만한 정세에 관한 긴급정보모임이 21일 인민문화회관에서 있었다.

주요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 대사관성원들과 외신 기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참모총장 김영철복군대장이 최근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의 끊임없는 반공화국적군사적도발로 하여 우리 나라의 정세가 전쟁경계로 치달고있는데 대해서와 적들의 파렴치한 모략소동의 진상에 대해 통보하였다.

그는 8월에 들어와 미국의 부주권 밑에 피괴들의 반공화국도발책동이 전례없이 우심해지고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남조선피괴군부대전광들이 그 무슨 《북포탄발사》 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해내고 그를 구실로 아군인경초소들에 36발의 포사격을 가하는 엄청난 군사적도발을 감행한데 대해 폭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북포탄발사》 사건이야말로 너무나 심각한 일이다. 이 모든것은 피괴들의 이번 무장도발이 완전한 허구에 기초하여 고의적으로 일으킨것이라는것을 말해주고 있다.

사태의 엄중성은 피괴들의 반공화국도발책동이 8월에 들어와 계획적으로 더욱 빈번히 벌어지고있다는데 있다.

피괴들이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의문의 《지피복발》 사건을 계기로 전선전선에서 대북심리

전방송을 재개하고 악질반동단체들을 내몰아 대북배라살포작전에 더욱 열을 올리는것은 사실상의 침략전쟁행위 위태로워진것이라고 말하며 아울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모든것은 피괴들의 이번 무장도발이 완전한 허구에 기초하여 고의적으로 일으킨것이라는것을 말해주고 있다.

사태의 엄중성은 피괴들의 반공화국도발책동이 8월에 들어와 계획적으로 더욱 빈번히 벌어지고있다는데 있다.

피괴들이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의문의 《지피복발》 사건을 계기로 전선전선에서 대북심리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위험한 군사적충돌을 가져올 심리전방송의 중지요구를 11일 피괴군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단세는 국방부가 지난 4일에 발생한 《지피복발》 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몰아가면서 《북측심리전》 방송을 제재하고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작전을 강화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특히 이번 사건을 구실로 《을지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에 미국의 《B-2A》, 《F-22A》 등 첨단투기기와 전투기들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단세는 규탄하였다.

이것은 남북 북사이에서 군사적충돌을 불러올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처사라고 단세는 단호히 말했다.

단세는 군대당국이 이번 《지피복발》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단세는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심리전방송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